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12월 09일(수) 오전 11:00 - 12:00

□ 장 소 : 온라인 ZOOM활용 비대면회의(복지관 3층 관장실)

□ 참석자 : 9명

○ 참 석 : 8명

김봉구 위원, 이현덕 위원, 정병오 위원, 류민석 위원, 김종민 위원, 김영미
위원(관장), 홍인실 위원, 이영란 위원

○ 불 참 석 : 2명

이영민 위원, 최성자 위원

○ 직 원 : 1명

김영례 부장

□ 개 회 선 언

-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 정병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 김영미관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여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

□ 보 고 사 항

-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
-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김영례부장: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비지정후원금이 41.3%로 감소된 부분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 추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어서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2021년 사업(안)·예산(안)**
- 김영례부장: 2021년 사업(안)·예산(안)을 보고하다.
- 김영미관장: 내년에는 복지4팀을 신설하여 노인특화사업(경로식당, 노인맞춤)을 지역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청년, 중장년1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연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정병오위원장: 어떻게 중장년1인가구를 지원할 계획인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실제로 중장년위기 1인가구가 발굴되었고 고립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하게 어떻게까지 지원하겠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마을, 의료와 협력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 정병오위원장: 중랑건강공동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중랑구 의사협회, 하나의료협동조합, 녹색병원, 복지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랑구의 강점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특히, 녹색병원)가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큰 동력이 되고 있다.
- 김봉구위원: 중랑의사협동조합 활동에서 시작해서 커뮤니티연구회를 운영하다가 복지, 마을까지 확대해서 올해 6월에 출범하였고 첫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
- 정병오위원장: 동주민센터 행복나누리협의체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저희 사업은 아니고 주민센터 사업인데 후원금 관리 부분이 어려워서 지출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 홍인실위원: 요즘 대부분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 데이케어센터는 야간이용인원이 증가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이영란위원: 기존 정원내에서 야간돌봄을 추가하는 가정이 많아진 것이다.
- 김영미관장: 데이케어센터는 긴급돌봄이나 대부분 출석을 하고 계시고, 외부 강사 출입 불가로 내부 직원들이 안전과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이 커졌다.
- 정병오위원장: 코로나 상황이 내년 봄에는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올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큰 차이는 없고, 복지관 휴관이라는 외부 인식이 커서 지자체 예산축소 등이 예상된다.

- 정병오위원장: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 논의사항

- 김영례부장: 올 한해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2021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제언을 요청하다.

- 정병오위원장: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실태, 학생들의 보급 등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가?

- 김영미관장: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1:1로 온라인 참여에 대해 교육, 안내를 하였다. 다문화 사업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 방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15가정에게 탭을 지원하였다. 직원들의 경우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줌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고, 기관에 방문해서 참여하는 문화교육사업 미실시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고민 중이다.

- 정병오위원장: 직접적인 물품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미관장: 올해 지정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취약가정 물품지원 실적이 높았다. 기존 복지관 이용자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내에서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다.

- 정병오관장: 코로나가 어찌보면 기존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을 노출시켜서 발굴하도록 하는 전환기에 온 것이 아닌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보고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 김봉구위원: 코로나시기라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분절화된 서비스가 통합되도록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 정병오위원장: 코로나 상황에 민관의 협력체계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 관이 주도하고 책임져야하는 것이 많아졌으면 한다.

- 김영미관장: 민관의 협력체계 변화는 별로 없고, 코로나로 인해 협력이 더 안되는 부분이 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벌리자니 직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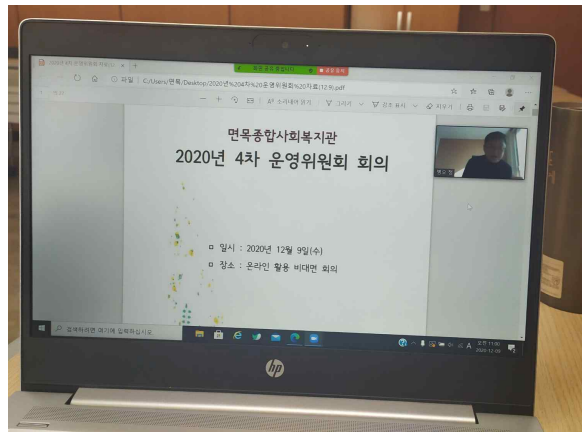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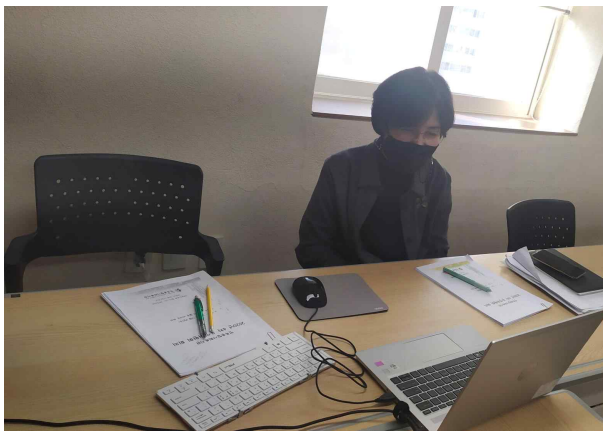
- 이현덕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잘 해준 것 같다.

- 류민석위원: 어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료급식소 상당수가 폐쇄되어서 서울 어르신들이 성남까지 원정을 가서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예산과 관련해서 쉽게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지역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 정병오위원장: 특이사항이 없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에서 한 마디씩 하였으면 좋겠다.

□ 기 타 사 항

- 김종민위원: 오늘 회의 보고 잘 들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모든 계획을 수행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 홍인실위원: 저희 복지관은 멈춤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고, 최근에 중랑구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랑의샘터가 3,000만원 시상을 한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자랑스러웠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 이영란위원: 일선에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지역내 이용자분들에게 멈추지 않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영미관장: 1년간 비상대응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운영위원님들이 지지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정병오위원장: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서 힘이 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개선과 변화가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직원 모두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다.
- 정병오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친다.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

<관련 사진>



제4차 운영위원회